

KIA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 끝낸 선동열 감독



“나의 야구 선수들도 공감”

일본 미야자키에 캠프를 꾸렸던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마무리 훈련을 마치고 30일 귀국한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마무리 캠프에는 신인 포함 63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내년 밀그립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춘 선 감독은 “선수단과 야구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었다. 내가 하려는 야구에 대해 설명했고, 선수들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선수단 내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같은 공감을 통해 선수들이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층 더 치열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었다”고 마무리 훈련을 평가했다.

투수 김희철·김진우·한승혁과 투기 박지훈, 야수 신종길은 선 감독이 뽑은 마무리 캠프 MVP다.

선 감독은 “김희철과 김진우는 캠프기간 가장 열심히 하면서 마인드와 기량 면에서 많이 향상됐고, 한승혁과 박지훈은 내년 시즌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야수 중에는 신종길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고 밝혔다.

마운드 강화 통한 ‘지키는 야구’ 추구

새 목적의식 갖고 치열하게 훈련했다

선 감독이 추구하는 야구의 큰 틀은 마운드 강화를 통한 지키는 야구.

선 감독은 선발-중간-마무리의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마운드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중간과 마무리 강화는 선 감독에게 주어진 과제다.

선 감독은 “여러 조각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팀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중간계투진과 마무리를 어떻게 완성시키느냐에 따라 내년 팀의 앞길이 좌우될 것이다. 타선에서도 타순에 적합한 선수들을 어떻게 포진시키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불펜 강화, 짜임새 있는 타선과 수비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겠다”고 언급했다.

완벽한 조각을 맞추기 위해 선 감독은 ‘무한 경쟁’의 스프링 캠프도 예고했다. 선 감독은 “무한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선수들에게 자리가 주어진다”는 이야기다. 현재까지 투, 타에서 보직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그만큼 열심히 하면서 기량의 발전을 가져온다면 그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마무리훈련을 지휘한 선 감독은 스프링캠프 준비를 위해 29일 오키나와로 자리를 옮겼다. 선수단과 달리 내달 2일 귀국하는 선 감독은 시상식 등 행사에 참석한 뒤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스프링캠프 등 내년 시즌을 구상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우즈 올 마지막 샷대결

세브론 월드챌린지 내일 개막

세계 정상급 선수 18명만 출전

타이거 우즈가 주최하는 세브론 월드챌린지 골프대회(총상금 500만 달러)가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우드 오크스의 서우드 골프장(파72·7052야드)에서 개막한다.

세브론 월드챌린지는 정규 투어가 아닌 비공식 대회지만 세계 정상급 선수 18명만 출전해 실력을 겨루는 ‘특급 이벤트’다.

우승 상금이 120만 달러고, 꼴찌를 해도 14만 달러(약 1억6000만원)를 받는다.

올해 대회에는 우즈 외에 최경주(41·SK텔레콤), 스티브 스트리커(미국), 폴 케이시(잉글랜드), 제이슨 데이(호주) 등이 출전한다.

2009년 11월 호주에서 열린 호주 마스터스 이후 2년이 넘도록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한 우즈는 이번 대회에서 명예 회복을 위한 우승컵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세브론 월드챌린지 출전 선수 가운데 우즈의 세계 랭킹이 52위로 가장 낮아 우승으로 가는 길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즈는 1999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2001년, 2004년, 2006년, 2007년 등 네 번이나 우승했지만 지난해는 그레임 맥도웰(북아일랜드)과의 연장전 끝에 준우승에 머물렀다. 3



지난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에서 세계연합팀의 최경주가 1라운드 포스트 대결을 끝낸 뒤 미국팀의 타이거 우즈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운드까지 4타 차 선두를 달려 우승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역전패를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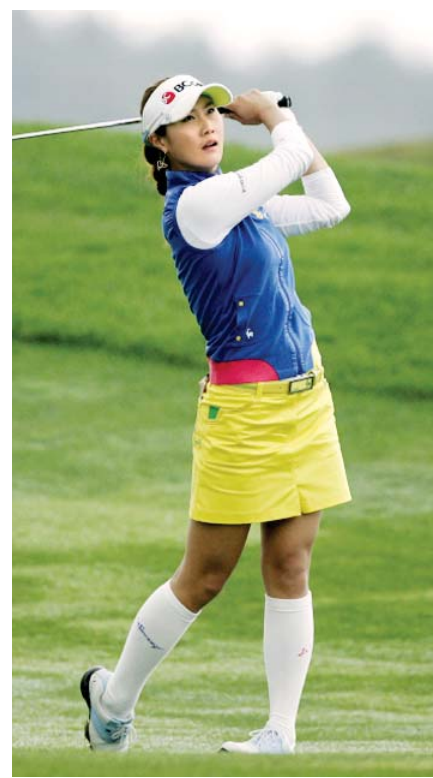
벤티업체 윌리엄 힐은 올해 대회에서 우즈의 우승 배당률을 11분의 4로 전망, 우승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했다. 우즈의 뒤를 이어 웹 심슨이 10분의 1, 닉 와트니와 짐 퓨릭(이상 미국)이 나란히 12분의 1로 평가됐다.

최경주는 이 대회를 끝으로 2011시즌을 사실상 마무리한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상금 443만4691달러를 벌

어 상금 랭킹 4위에 오른 최경주는 2003년 이 대회에서 6위, 2008년에는 9위의 성적을 냈다.

윌리엄 힐은 최경주의 우승 배당률을 스트리커, 케이시와 함께 16분의 1로 평가해 공동 8위에 올려놨다.

한편 양용은(39·KB금융그룹)은 같은 기간에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 등이 출전하는 유럽프로 골프투어 UBS홍콩오픈(총상금 275만 달러)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김하늘

한국 골프 女王은 누구?

KLPGA 왕중왕전 12월 3·4일 해남 파인비치서 열려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무대를 뜨겁게 달궜던 선수들이 격돌한다. 12월 3일과 4일 해남의 파인비치 골프 링크스(파72·6321야드)에서 열리는 한양수자인·광주은행 KLPGA 올스타 왕중왕전에서다.

이 대회에는 올 시즌 3관왕을 차지한 김하늘(23·비씨카드)을 비롯해 모두 8명이 출전, 총상금 1억2000만원(우승상금 4000만원)을 놓고 샷대결을 벌인다.

김하늘은 상금왕, 다승왕(3승), 대상을 휩쓴 올해 최고의 선수다.

또 신인왕을 차지한 정연주(19·CJ오쇼핑) 외에 심현화(22·요진건설), 양수진(20·넵스), 이수현(20·하이마트), 최혜정(27·블

빅), 조영란(24·요진건설), 김혜윤(22·비씨카드)이 출전한다.

이 대회는 KLPGA 정규대회는 아니지만 올 시즌의 대미를 장식한다는 점에서 골퍼 팬들의 관심을 끈다.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선 마지막 날 2라운드의 경기 방식이 흥미롭다.

대회 주최 측은 2라운드 15~18번홀에 ‘더블핀-더블스코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기방식은 15~18번홀 그린 위에 난도가 다른 두 개의 핀을 꽂아놓고, 선수가 선택해서 공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려운 핀을 공략해 홀아웃을 하면 두 배의 스코어를 준다. /연합뉴스

SINCE 1982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 젠 톤 -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총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전국 최저가 판매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작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생 펌크 무상점검
- 타이어밀,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워셔액 무료증정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소형 25만원 → 13만원
- 중형 30만원 → 18만원
- 대형 35만원 → 2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